

거하시리니

요한계시록 21:1~8

요절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번 수양회 주제는 “그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메세지까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간의 최후의 완성을 보여주며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땅의 역사는 끝나고 끝없는 시대가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영원한 세계로 인도되어, 보고 들은 체험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자주 외로움과 절망과 무의미를 느낍니다. 고통과 유혹이 우리를 나약케 하고 절망케 합니다. 늘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삶을 살기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천국을 조금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환상을 보여 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라”는 의미와 왜 이 이것이 영생과 승리하는 삶에 결정적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세상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사도에게 힘주시려고 천국의 창을 열자, 요한 사도는 ‘내가 보니’ 또 ‘내가 들으니’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만물이 새롭게 된 것에 대한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마태복음 19 장 28 절). 영원의 세계가 드러나게 되자 그는 새 시대를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졌습니다. 바다도 사라졌습니다. 바다는 나라들과 민족들 사이를 가르는 거대한 장벽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바다에서 파도로 인해 겪은 위험과 잃어버린 생명들은 감히 셀수도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바다는 마귀의 작전기지를 의미 하는데 구속받은 세상에서는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소멸시키는 불로 엄청나게 변형될 것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벧후 3:11-13) 이 세상이 반드시 정제 되어야 할 이유는 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의미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또 일하려고 노력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 들만이 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기대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쓰디쓴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과 경건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같은 것들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2 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음으로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도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이 땅의 어떤 도시와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크기와 살아 움직이는 색상, 그리고 완벽한 영광으로 묘사됩니다. 실제로 우주를 환희 밝힐 것입니다(9-21).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 같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영원한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곳을 부여받은 모든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교회는 종종 하찮고 나약하고 깨지기 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예수님의 교회는 종종 무시당하며 평가절하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 교회에 부여된 가치와 중요성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인 현재 우리는 장차 덧입을 우리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장차 완벽하게 완성될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새 예루살렘이 “신부”로 묘사될까요? 신부들은 아름다움과 완벽함의 전형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기쁨과 기대로 빛을 발하는데, 이것이 교회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기대감의 시작! 넘치는 사랑과 신뢰! 결혼관계는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깨끗한 신부의 모습과 같이 영원히 완전한 상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는 가끔씩 죄로 인한 아픔과 정체되고 결핍된 영적 성장을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름답고 흠이 없고 거룩하며 화려한 신부라고 느끼기보다는 가망이 없는 못된 예비신부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과의 달콤한 사랑과 사명이 우리의 개인적 실패와 계속되는 문제들 그리고 단조로운 일상의 일들로 대치되어 왔습니다.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명상은 길고 험난한 여행으로 지친 순례자들을 위한 건강 음료와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부의 입장은 가장 황홀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신부의 묘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불완전함 가운데서도 일하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는가를 상기 시켜 줍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신혼의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부는 여러분의 분신입니다. 여러분이 당신의 신부를 잘 대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잘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고 그분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에도 우리를 아주 오랫동안 열렬하게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최고의 인간관계나 결혼 생활도 시간이 지나면 메마르게 되지만 예수님과의 신혼생활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3 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며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천사가 전혀 새로운 말씀을 요한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것은 천국에 관해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와 함께 “거한다”는 의미는 그분의 임재하심을 더 직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인데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22:4). 성도들에게 가장 놀라운

경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의 아들 조나단이 최근에 일본으로 단기선교를 가기 전에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 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시편 23 편 1 절, 71 장 5 절). 여기 많은 분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손을 붙드실 분도 하나님 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의 삶을 가치있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지옥과 같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죽음과 죄의 결과로부터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사랑과 완전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고 걸었고 또 섬겼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의로우신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저주와 진노만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자의식과 수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마귀의 통치아래 악한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서로에 대한 친근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인류 역사는 불신과 폭력과 차별과 부도덕과 학대로 불구가 되어갔습니다. 우리의 수치심과 죄의식은 하나님을 비뚤어지게 보게 하였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실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의 처소를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 장 14 절) 예수님은 신실 하시며 진실 하십니다. (19 장 11 절) 하나님은 우리가 대화 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만질 수 있도록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결박도 끊어 버릴 수 있는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타이타닉호 만큼이나 무거운 죄의식과 정죄함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헐크와 삼손 그리고 토르를 합해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나아 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흘러 짐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삼키지 않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케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은 매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옛 생활로 되돌아가고, 죄에 넘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하심을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멀리 느껴지고 안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육신적 욕망으로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영원히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때 회개치 않고 예수님의 용서의 피를 영접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 가운데 멸망할 것입니다(21:8). 그러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변화될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평화와 안전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를 사랑 하였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빌립보서 1:23)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결국 성취하실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식탁에 정기적으로 환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고 희생적이며 거룩한 사랑으로 그분의 언약과 약속을 보장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자의 미래는 너무나 확실해서 우리는 이미 금으로 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21).

하나님과 함께 하면 또 어떠할까요? 4 절은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 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평생 슬픔의 짐도 덜어 질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미완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은혜와 배려심이 많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감정들도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세계복음화의 매개체이며 댓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땅끝까지 가고자! 눈물과 고통 그리고 슬픔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전진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거부하는 곳에서 역사를 섬기는 분들에게는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다며 쉽게 소망을 잃고 두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천국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코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보상될 것임을 보여 줍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고전 15:58). 사실 대부분의 상급은 지금이 아닌 이후에 받게 될 것입니다. 22:1-5 절에서 요한은 천국의 여러가지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을 수 없을만큼 거룩하고 순결 합니다(1-2). 한센씨 병자를 고쳤던 그 능력이 생명나무에서 나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면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저주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3).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죽은 크리스찬들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고전 15:42-44). 성경은 우리의 부활체가 불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생은 참으로 긴 시간이므로 우리는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상상을 초월한 기쁨과 평화 가운데 거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고 사랑하며 닮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은 마치 폭포수 앞에서 있는것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이나 추측 그리고 갈팡질팡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고전 13:12). 저의 직업은 재활치료인데 그 때는 의학이나, 법률, 전도, 교육, 구급차, 장례 서비스업들처럼 모든 전문직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 경험들이 요한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탕자를 영접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원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영혼의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7 절을 보십시오. 천국을 방문한 요한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7 절은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되리라' 천국에는 죄와 유혹이 전혀 존재치 않습니다(8). 죄와 그 모든 잠재성마저 끊어 졌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역사와 세상의 운명 속에서 잠시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초라해 보이고 거의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서 계시며 주의깊게 그들의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1:12,13). 우리가 잘 하면 칭찬 하시고, 성장이 필요할 때는 상담해 주시고 약속하시며 책망도 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스럽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2:9,14),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1:19; 13:10; 14:12),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12:11) 복음의 진리를 열정적으로 선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2:13; 3:8).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님은 모든 가능성을 결정짓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최후의 완성을 이룰 것이지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8). 우리의 승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완벽하게 정복하신 예수님께로 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지배하는 모든 곳에서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영접할 때 우리는 성문으로 들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22:14).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붙들며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고 평화를 누리며 거룩함과 기쁨의 새 기준을 갖게 해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천국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양과 함께 거할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이 본문 말씀들은 비록 여러분도 저와 같은 죄인 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천국에서 우리의 도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세계 선교 역사에서 당신의 모든 순종과 믿음은 십억배 이상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 보고 이 소망을 위해 사십시오. 이 환상에 기초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그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십시오.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3)

*Listen to English Message

<http://hiskingdom2018.org/about-us-basic/accordions-2-2/speakers/>